
저자 (Authors)	최병헌
출처 (Source)	신라문화 54 , 2019.8, 89-119(31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54 , 2019.8, 89-119(31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19599
APA Style	최병헌 (2019). 신라 진흥왕대의 국가발전과 정치사상 - 진흥왕순수비 · 황룡사장육존상 조성의 역사적 의의 -. 신라문화, 54, 89-11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4 10:1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진흥왕대의 국가발전과 정치사상

- 진흥왕순수비 · 황룡사장육존상 조성의 역사적 의의 -

최 병 헌*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大昌'기 진흥왕순수비와 유교정치이념 |
| II. '建元'기 법흥왕의 계승과 「국사」 편찬 | V. '鴻濟'기 황룡사장육존상과 불교정치이념 |
| III. '開國'기 영역확장과 황룡사 창건 | VI. 맺음말 |

[국문초록] 신라 제24대 진흥왕대(540~576)는 왕권강화와 영역확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삼국시기 신라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진흥왕대 고대국가 발전의 업적은 흔히 고구려의 제19대 광개토왕대(391~413)와 백제의 제13대 근초고왕대(346~375)의 그것에 비교되었다. 그런데 진흥왕이 국가발전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할 때는 고구려와 백제가 이미 전성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든 뒤였다. 신라의 국가발전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여 150~200년이나 뒤늦게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흥왕대의 국가발전은 시기적으로 늦은 만큼 젊고 패기 넘치는 역동적인 역사를 연출하였다.

진흥왕대는 재위 37년 동안 建元·開國·大(太)昌·鴻濟 등 연호를 4번 바꾸었는데, 한 국왕의 재위 기간에 이렇게 잦은 연호 변경은 매우 드문 일이다. 첫 번째 '건원'은 처음으로 연호를 세운다는 의미로서 앞서 법흥왕 23년(536)에 제정된 연호를 그대로 계승하여 11년 동안 사용하였다. 이 기간은 7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진흥왕이 어머니 只召太后的 섭정 아래 전왕인 법흥왕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다음 시기의 발전을 준비한 시기이다. 다음 두 번째 '개국'은 새로 나라를 연다는 의미로서 커다란 정치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진흥왕이 18세의 나이가 되면서 親政에 임하여 이후 17년 동안 왕권강화와 영역확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발전의 전성기에 들어서게 하였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창'은 국가가 크게 창성한다는 의미로서 앞선 시기의 정치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유교적인 지배이념으로서 王道思想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진흥왕순수비가 4년 동안의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집약적으로 나타내준다. 그리고 네 번째 '홍제'는 널리 제도한다는 의미로서 불교적인 영향을 나타내주고 있다. 앞선 시기의 유교적인 정치이념 대신에 새로 불교적인 정치이념을 채용해서 轉輪聖王 같은 위대한 제왕을 염원하였는데, 황룡사 장육존상의 造成이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명예교수

5년 동안의 불교적인 정치이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이로써 각각의 연호는 단순한 연대표기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기에 추구되던 국가발전의 정책방향과 시대정신을 표방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진흥왕의 재위기간은 연호의 변경에 따라 4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왕권강화와 영역확장 등의 정치적 변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정치사상의 변화가 추구되고 있었다. 진흥왕의 治世는 실로 유교적인 왕도사상과 불교적인 전륜성왕 이념을 통하여 世間的 俗諦와 出世間的 眞諦를 아우르는 王道政治와 政法治世를 구현하려는 역사를 연출하였다. 진흥왕대의 이러한 정치적·사상적 업적은 뒷날 삼국통일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영문초록] The reign of Jinheung (540~576), the twenty-fourth ruler of Silla, witnessed the consolidation of monarchical authority and the attendant pursuit of territorial expansion which facilitated the unprecedented rise of the kingdom as the most formidabl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chievements of King Jinheung have often been compared with those of King Gwanggaeto(391~413), the nineteenth ruler of Goguryeo, and King Geunchogo(346~375), the thirteenth ruler of Baekje. It is worthy of note, however, that in the mid sixth century when King Jinheung commenced his political career, the power of Goguryeo and Baekje had waned. Silla lagged behind its two neighbours by 150 to 200 years, and yet, King Jinheung's policies and vision filled Silla with dynamism and catapulted to great height of success.

Over the thirty-seven years of his reign, King Jinheung used four different era names (or reign titles): Geonwon(建元), Gaegug(開國), Daechang(大昌), and Hongje(鴻濟). Employment of four era names by a single ruler is indeed a highly unusual political practice. Geonwon, which means “establishment of the first Era Name”, was originally created by King Jinheung's predecessor King Beopheung in 536, the twenty-third year of his reign. Having ascended to the throne at the early age of seven, King Jinheung inherited the era name Geonwon and in the period of the first eleven years of his reign during which this era name was retained, he upheld his predecessor's policies and prepared himself to take the mantle of power in his own hands from his mother Princess Jiso who acted as regent. The second era name Gaegug, which means “to newly establish a kingdom”, suggested that his leadership would be defined by political initiatives. Once King Jinheung turned eighteen and began to rule Silla, he spent the next seventeen years strengthening the royal authority and actively expanding his kingdom's territory, thereby inaugurating a golden age of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Silla. Close on the heels of such political achievements came the third era name Daechang, which means “to make the kingdom glorious”.

The third era name conveyed King Jinheung's intent to follow the Confucian idea of the kingly way of benevolent governance. The practice of Confucian political idea by King Jinheung during the four years of Daechang era finds illustration in various stele inscriptions, representing his edict and proclamations during his tour to various parts of his kingdom. The fourth era name Hongje, meaning “to redeem/save far and wide”, may be interpreted to mean that Buddhist political

thought now replaced Confucian Ideology that served as the guiding ideology during the previous era and the king aspired to become an ideal ruler resembling Cakravartirājan. The sixteen-foot Buddha statue at Hwangryongsa Temple, built during this period, may be cited as an emblem and evidence of the influence of Buddhist political thought on kingship.

It is apparent that changes in the era name represented shifts in King Jinheung's policies and ideas during the four different phases of his rule. By implementing both Confucian and Buddhist ideologies, King Jinheung sought to realize benevolent governance and the rule of law that embraced conventional and ultimate truths. Needless to say, these political and ideological achievements during the reign of King Jinheung served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주제어] Era Name (年號), the monument in commemoration of King Jinheung's tour (眞興王巡狩碑), Confucian thought of Kingly Way (王道思想), the sixteen-foot Buddha statue at Hwangryongsa Temple (皇龍寺丈六尊像), Cakravartirājan (轉輪聖王), the Confucian political ideology (儒教政治理念), the Buddhist political ideology (佛教政治理念)

I. 머리말

신라 제24대 진흥왕대(540~576)는 왕권강화와 영역확장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삼국시기 신라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진흥왕대의 업적은 흔히 고구려의 제19대 광개토왕대(391~413)과 백제의 제13대 근초고왕대(346~375)의 그것에 비교되었다. 그런데 고구려는 신라의 진흥왕이 재위할 때에는 이미 전성기를 지나서 귀족 세력의 분열로 국력이 크게 쇠퇴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는 제24대 양원왕(545~559)의 즉위과정에 대해 별다른 기록이 없지만, 『일본서기』 긴메이(欽明)천왕 7년조에서는 왕위계승 문제로 외척세력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었던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이 해에 고(구)려에서 大亂이 일어나 전투에 죽은 사람이 2,000여인이었다”고 하고, 그 밑에 註로 『百濟本紀』를 인용하여 “고(구)려에서는 정월 병오일에 中夫人의 아들을 세워 왕으로 삼았는데, 나이가 8세였다. 狍王(안원왕)에게는 3인의 부인이 있었는데, 正夫人은 아들이 없었다. 중부인은 世子를 낳았으며, 그 외숙이 麤群이었다. 小夫人도 아들을 낳았으며, 그 외숙은 細群이었다. 狍王이 위독하자 세군과 추군이 각각 자기 부인의 아들을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에 세군의 죽은 자가 2,000여인이었다” 라고 하였다.¹⁾ 진흥왕 12년(551) 죽령 이북 고구려의 10군을

1) 『일본서기』에서 인용한 『백제본기』는 백제가 멸망한 뒤 일본에 망명한 백제인이 편찬한, 이른바 백제 3서 가운데 하나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사서로 평가된다.

점령할 때에 고구려 승려 惠亮이 신라에 망명을 요청하는 이유를 들어, “우리 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서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백제는 근초고왕대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경기·충청·전라도 지역을 모두 영유하여 전성기를 맞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며, 제21대 개로왕대(455~475)에는 고구려의 남침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서울을 웅진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대외적인 위기상황에서도 귀족세력의 내분이 격화되어 여러 명의 국왕이 피살당하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됨으로써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제26대 성왕대(523~554)에 이르러 부여로 도움을 옮기고 중흥을 모색하였으나, 진흥왕 15년(554) 신라군에게 성왕 자신이 피살당함으로써 중흥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진흥왕이 국가발전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할 때에 고구려와 백제는 이미 전성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든 뒤였다. 신라의 국가발전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여 실로 150~200년이나 뒤늦게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흥왕대의 국가발전은 늦은 만큼 젊고 패기 넘치는 역동적인 역사를 연출하였다. 따라서 진흥왕의 재위 37년 동안은 여러 단계로 시기가 구분될 수 있을 만큼 눈부신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진흥왕대의 국가발전과정에 대한 시기구분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의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年號의 변경에 다른 구분도 의미가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연호는 단순히 한 왕대의 연대를 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흥왕대는 建元·開國·大昌(또는 太昌)·鴻濟 등 연호를 4번 바꾸었는데, 한 국왕의 재위 기간 이렇게 잦은 연호 변경은 매우 드문 일이다. 첫 번째 ‘건원’은 처음으로 연호를 세운다는 의미로서 앞서 법흥왕 23년(536)에 제정된 연호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개국’은 새로 나라를 연다는 의미로서 커다란 정치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창’은 국가가 크게 창성한다는 의미로서 전성기에 들어섰고, 유교적인 지배이념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네 번째 ‘홍제’는 널리 제도한다는 의미로서 불교적인 영향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로써 각각의 연호는 단순한 연대표기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기에 추구되던 시대정신과 국가의 이상을 표방해주는 것이며, 실제적인 정치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진흥왕의 재위기간은 연호의 변경에 따라 4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왕권위상의 변화와 영역확장 등의 정치변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정치사상의 변화가 추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에서는 진흥왕 재위 37년 동안을 연호의 변경을 기준으로 4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왕권강화와 영역확장 등의 국가의 발전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정치사상의 발전과정을 정리하여 보려고 한다. 특히 정치사상의 발전과정에서 대창 원년인 진흥왕 29년(568)에 수립된 진흥왕순수비에 나타난 유교적인 정치이념, 그리고 홍제 3년인 진흥왕

33년(574)에 조성된 황룡사장육존상의 연기설화에 반영된 불교적인 정치이념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하여 진흥왕대의 정치사상의 내용과 역사적 의의를 추구해 보려는 것이다.

진흥왕대의 국가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개설적인 이해는 가능하게 되었다. 진흥왕대의 왕권강화와 영역확장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병도의 『眞興大王의 偉業』(『한국고대사연구』, 1976, pp.668~684)에서 개략적인 이해체계는 설정되었고, 불교정책과 사상에 대해서는 김영대의 『신라 진흥왕대의 信佛과 그 思想研究』(『불교학보』 5, 1967, pp.53~83)에서 대체적인 사료정리는 일단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리고 개별 주제에 대한 연구로서는 진흥왕순수비, 그리고 황룡사와 장육존상의 문제가 특히 학계의 주목을 받아 많은 연구업적이 축적되었다. 진흥왕순수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서는 노용필의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일조각, 1996)가 주목되는 성과로 평가되며, 황룡사와 장육존상에 대한 연구로는 역사학뿐만 아니라 미술사 분야에서 일일이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저술과 논문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미술사 분야에서 1976~1983년의 황룡사지의 발굴을 계기로 하여 연구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어 그 성과를 종합 정리하는 과제를 새로 남기게 되었다. 역사학계에서 황룡사와 장육존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와 불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기백의 『皇龍寺와 그 創建』(『신라시대 국가불교와 유교』, 1978)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편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나, 학자에 따라 상당한 견해 차이를 노정하였다. 역사학 분야에서의 연구방법으로 특히 지적되는 문제점으로는 사회사적인 이해방법을 사상사의 문제인 불교사상 연구에 직접 적용하는 데서 오는 기계적인 해석을 벗어나지 못하는 오류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 대세를 이루는 것은 미시적인 연구방법인데, 나무 한그루 한그루에만 매달린 나머지 구체적이고 깊은 이해를 추구하려는 자세는 평가받을 수 있으나,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의적인 해석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특히 유의하면서 진흥왕대의 국가발전과정을 거시적으로 개관하면서 국가발전과 정치사상, 유교와 불교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추구하고 하는데,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개설적인 이해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신라의 국가발전과 불교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선 진흥왕대의 문제를 정리해본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로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조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진흥왕조를 비롯한 『삼국사기』의 인용은 별도로 자료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Ⅱ. ‘建元’기 법흥왕의 계승과 『國史』 편찬

제1기 ‘건원’기 11년간(법흥왕 23년~진흥왕 11년)은 7세의 어린 나이²⁾로 즉위한 진흥왕이 법흥왕의 딸이자 모후인 只召太后的 섭정을 받으면서 법흥왕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던 시기이다. 불교를 새로운 지배이념으로 삼은 이른바 ‘중앙집권적 귀족국가’의 기반을 마련한 법흥왕(514~540)이 재위 27년만에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인 丕麥宗(또는 深麥夫)에게 왕위가 계승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立宗葛文王으로 법흥왕의 친동생이었는데, 법흥왕의 딸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었다. 입종갈문왕은 법흥왕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나,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 진흥왕이 됨으로써 이후 신라 왕위는 그 자손이 계승하게 되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³⁾

진흥왕은 즉위하면서, 선왕인 법흥왕이 즉위 22년(535) 국왕의 초월적 지위를 상징하는 왕호로서 ‘聖法興大王’을 칭한데 이어 다음 해(536) 처음으로 제정한 ‘건원’이라는 연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함으로써 법흥왕의 정통 계승자로서 자임하고 그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것임을 표방하였다. 실제적으로 진흥왕은 대내적으로는 법흥왕이 시작한 흥륜사의 공사를 완성하고, 『國史』라는 이름의 역사서를 편찬하여 왕권의 정통성 확립과 위상 강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나제동맹의 정책을 계승함으로써 즉위 2년(541)에 백제의 강화 요청을 받아들여 공동으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는

-
- 2) 『삼국유사』 권제1 기이편 진흥왕조에서는 진흥왕이 즉위할 때의 나이를 15세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흥왕 22년(561)에 수립된 『창령 진흥왕척경비』에서 진흥왕 스스로 “寡人은 어려서 왕위에 올라 정사를 보필하는 신하에게 맡겼다”라고 한 것을 참고할 때 7세 즉위설이 사실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본다.
- 3) 입종은 법흥왕 11년(524)에 수립된 『蔚珍 鳳坪碑』에서는 沙啄部 소속의 徙夫智葛文王으로 표기되었는데, 그의 친형인 법흥왕의 처음 이름인 牟即智寐錦王(매금왕은 마립간의 의미)은 啄部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법흥왕과 입종갈문왕의 아버지인 지증왕(지증왕 즉위4년에 수립된 『迎日 冷水里碑』에서는 사탁부 소속의 至都盧葛文王으로 표기됨)은 사탁부 소속으로 정변을 통해 탁부에서 계승해 오던 왕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왕위를 이은 맏아들인 법흥왕은 소속부를 탁부로 옮기고, 둘째 아들인 입종갈문왕은 사탁부의 대표로 남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6부체제는 마립간시기 지배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는데, 이미 지증왕 때부터 크게 변질되어 탁부와 사탁부의 2부가 결정적으로 우세하게 되었고, 그를 이은 법흥왕대에는 입종갈문왕이 사탁부의 수장으로 2인자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입종갈문왕은 『川前里書石』에서도 등장하는데, 법흥왕 12년(525)에 사탁부의 갈문왕 등 3인이 천전리 계곡에 놀러와 명문을 남기고 있었고, 또 법흥왕 26년(539)에 另即知太王(법흥왕)이 부인 夫乞支妃(保刀夫人)와 徙夫知王(입종갈문왕)의 아들인 深□夫知를 데리고 천전리 계곡에 놀러 갔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 법흥왕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입종갈문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인 심□부지, 곧 뒷날의 진흥왕이 어린 나이로 따라갔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군사조직을 정비하여 뒷날의 대외팽창을 준비하였다. 진흥왕대 전반 지소태후의 섭정 시기는 무엇보다도 군사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실시하였다. 즉위 2년(541)에 異斯夫(또는 菴宗, 伊宗)를 兵部令으로 임명하여 중외의 兵馬事, 곧 중앙과 지방의 군사의 일을 관장케 하였다. 이사부는 일찍이 지증마립간 6년(505) 처음 州郡制를 시행할 때 悉直州(삼척)의 군주가 되었으며, 13년(512) 何瑟羅州(강릉)의 군주가 되었을 때에는 于山國(울릉도)을 정복한 바 있었는데, 나무로 만든 사자로 위협하여 항복받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설화로 전해졌다. 병부령 이사부는 진흥왕대 전반기 최고의 실력자로서 정국을 주도하였다. 원래 병부는 법흥왕 3년(516) 신라의 중앙 관부 가운데 최초로 설치되었는데, 6부로 나누어진 중앙의 군사권을 결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장관인 병부령은 관등이 대아찬에서 태대 각간까지의 소유자로 임용하였으며, 또한 宰相과 私臣을 겸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진흥왕대에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6부대표자회의체를 계승한 귀족회의(화백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하는 최고의 관직인 上大等の 임명 사실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상대등은 법흥왕 18년(531)에 설치되어 최초로 哲夫가 임명되었는데, 그 3년 뒤인 법흥왕 21년(534) 철부가 사망한 이후 진흥왕대 내내 『삼국사기』에서는 임명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 진흥왕 22년(561)에 세워진 『昌寧 眞興王拓境碑』에서 상대등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 진흥왕 때에도 상대등의 임명 사실이 전연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국왕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지배체제가 구축되어가는 추세에서 전시기의 6部體制的 지배질서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던 상대등은 더 이상 각광을 받을 수 없었던 것 같다. 특히 바로 얼마 뒤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대대적인 영역 확장 사업에 대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무엇보다도 군사조직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던 진흥왕대 초기에는 상대등보다는 병부령의 존재가 더욱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진흥왕 5년(544)에는 병부령을 1인 증원하고, 동시에 신라 최고의 중요 군단인 6停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된 부대로서 왕경 수비의 임무를 맡은 大幢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어 진흥왕 13년(552)에는 上州停을 시작으로 이어 漢山停·牛首停·河西停·完山停 등을 설치하여 6정을 완성하고, 진흥왕 10년(549)에는 6정에 각각 大官大監의 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뒷날 지방에 주둔하는 군단의 중핵으로 기능하게 되는 10停을 모두 설치함으로써 군사조직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게 정비되었다.

그런데 진흥왕은 군사조직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서두르는 한편, 법흥왕대부터 시작된 興輪寺의 창건 작업도 계속 진행하여 상당한 우여 곡절을 겪은 끝에 진흥왕 5년(544)에는 마침내 완공하였다. 그리고 신라 최초 사찰의 이름을 ‘大王興輪寺’라고 명명하여 선왕인 법흥왕의 공덕을 선양하였다.⁴⁾ 또한 흥륜사의 준공을 계기로 출가하여

4) 『蔚州 川前里書石』 甲寅銘에는 “甲寅年에 大王寺의 安藏이 짓다”라고 하여 ‘대왕사’라는 이름이 이미 법흥왕 때부터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흥왕 5년(544)에 준공하고 법흥왕을 지칭하는 대왕사의 이름을 흥륜사라는 사찰 이름 앞에 붙여준 것이다.

승려가 되어 부처를 신봉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국가불교로 공인하였다. 법흥왕의 업적을 이어받아 불교를 통하여 국왕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국왕 중심의 지배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업을 동시에 추진해간 결과였다. 그리고 진흥왕 6년(545)에는 兵部令으로서 국정을 총괄하던 異斯夫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라국가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사부가 말하기를, “國史라는 것은 君臣의 善惡을 기록하여 褒貶(잘하고 못한 평가)을 만대에 보이는 것이니, 史記를 꾸미어 두지 않으면 후세에서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그렇게 여기어 대아찬 居柒夫 등에 명령하여 널리 文士를 모아 국사를 편찬케 하였다. 居柒夫(또는 荒宗)는 학자이자 장군으로서 이사부를 도와 당시 정국을 함께 주도하고 있었으며, 이사부가 죽은 뒤에는 그의 위상과 역할을 계승하여 다음 진지왕대에는 상대등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이때에 서둘러 국사를 편찬한 것은 왕권강화와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새로이 변화된 시대 상황에 걸맞게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 재정립하는 일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국사』의 편찬이 유교적 사관에 입각하여 왕실의 정통성을 천명하고 국왕의 위엄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임을 고려하면 진흥왕은 불교신앙과 함께 유교정치이념을 초기부터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진흥왕 2년(541)에는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강화를 청해오자 승낙하였다. 백제와는 고구려의 남침에 대항하여 일찍이 눌지마립간 17년(433) 동맹을 맺은 이래 소지마립간 15년(493)에는 결혼동맹을 맺은 일까지 있었다. 두 나라 사이의 동맹 관계는 진흥왕 때까지 100여년을 지켜온 것이었다. 실제 진흥왕 9년(548)에는 고구려가 穢人(고구려에 복속되어 있던 東濊人)과 함께 백제의 獨山城에 쳐들어오자, 백제의 구원 요청에 부응하여 장군 朱瑜(또는 朱珍)에게 강병 3천명을 이끌고 가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게 하였다. 그런데 진흥왕의 즉위 초부터 대외적인 정복 활동에 대비하여 군사조직의 정비를 서두르던 신라는 진흥왕 11년(550)에 이르면서 나제동맹을 통하여 고구려의 남침을 방어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마침내 한강 유역을 대상으로 영역 확장의 의욕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두 나라가 道薩城과 金峴城을 사이에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두 나라 모두 피로해진 틈을 엿보아 이찬 이사부로 하여금 출병, 습격케 하여 2성을 모두 점거하였다. 그리고 그 성들을 증축하여 군사 1천을 머물러 지키게 함으로써 북방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다. 바로 이 무렵에 건립된 『丹陽 新羅赤城碑』를 통해서도 신라가 남한강 상류지역까지 진출하는 전과를 올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적성비의 문장은 순수한 한문식이 아니라 신라식의 이두문과 한문이 혼용된 소박한 것이지만, 그 내용에서 왕명을 받아 출정한 이사부(伊

그리고 안장은 진흥왕 11년(550)에 大書省이라는 승관으로 임명된 안장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권40, 職官下 참조)

史夫로 표기됨)를 비롯한 여러 명의 장군들이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赤城(충청북도 단양군 단양면 하방리 소재)을 공략한 뒤에 그들을 도와 공을 세웠던 적성 출신의 也次要와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던 인물들을 포상한 사실을 증명하고, 나아가 적성의 지방민들을 위무할 목적에서 세운 비석임을 알 수 있다. 북방에 대한 영역 확장 과정의 사정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자료로서 주목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한강 유역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활동은 진흥왕이 18세로 成年 나이가 되어 親政이 시작되는 진흥왕 12년(551)부터 본격화될 수 있었다.

Ⅲ. ‘開國’기 영역확장과 황룡사 창건

진흥왕대의 제2기에 해당되는 ‘개국’시기 17년간(진흥왕 12~28년)은 진흥왕이 親政에 임하여 자신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이다. 진흥왕의 나이 18~34세인 청·장년의 시기에 해당되는데, 진흥왕 재위 37년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장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권강화와 영역확장을 위한 사업이 가장 정력적으로 추진된 기간이다. 진흥왕은 건원 시기의 준비과정에서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옛 백제의 한강유역과 가야의 낙동강 서쪽 지역을 영유하고, 고구려의 승려인 惠亮을 받아들여 최초의 國統이라는 僧官을 설치하고 皇龍寺를 새로 창건함으로써 興輪寺를 대신하여 국가불교의 중심도량을 삼았다. 그리고 중국 남북 양조의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이전시기 백제와 남조의 梁과의 교류에 그쳤던 일방적 외교의 한계에서 벗어나 중국의 선진문화를 직접 수입하고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삼국사기』 진흥왕조의 내용 가운데서 개국시기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진흥왕의 업적 대부분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진흥왕은 12년(551) 정월 18세 성년의 나이로 親政을 시작하자, 우선 나라를 새로 연다는 뜻의 ‘開國’으로 연호를 바꾸었다. 법흥왕 23년(536) 처음으로 제정된 연호 ‘建元’을 16년만에 폐기하고, ‘개국’으로 바꾼 것은 가까이는 지소태후의 섭정으로부터 벗어나 진흥왕이 친정을 시작했다는 의미이며, 멀게는 그때까지 계승해 오던 법흥왕의 정책을 바꾸어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개혁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진흥왕이 추구한 새로운 국가의 정책은 外征과 內治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강력하게 분출된 것은 외정, 즉 활발한 정복 전쟁을 통한 영역 확장의 정책이었다. 진흥왕 12년(551)에 백제 중흥의 영주 제26대 聖王(523~554)과의 공동작전으로, 귀족 사이의 내분에 의하여 국가의 방위력이 크게 약화된 고구려를 공략해서 백제는 고구려가 점유하고 있던 한강 하류지역을 점령한 반면, 신라는 죽령 이북 고현(高峴, 철원 북쪽의 곡산이나 철령?) 이내의 한강 상류지역 10군을 점유하였다. 신라는 그러나 2년 뒤

인 14년(553)에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한 백제의 군대까지 다시 축출하여 한강 유역 전부를 독점하였다. 그리고 한성을 중심으로 新州(한산주)를 설치하고 금관가야의 왕실 계통인 金武力을 그 군주로 삼았다.⁵⁾ 그리고 신라의 한강 유역의 독점에 격분한 백제를 달래기 위해서 백제왕의 딸을 小妃로 맞아들이는 유화책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흥왕 15년(554) 신라의 '배신행위'에 격분한 백제는 加良(고령의 대가야)와 함께 신라를 직접 공격하여 왔고, 신라는 처음에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新州의 군주 김무력의 분전으로 위기를 넘겼고, 마침내 성왕을 管山城(옥천) 전투에서 전사시키고 佐平 4인과 군사 29,60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 신라와 백제의 공동 북벌의 효과는 결국 신라에 의해 독점된 것이다. 이로써 120여 년간이나 계속되어 오던 두 나라의 동맹은 마침내 깨져 버렸으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신라의 한강 유역 점유는 앞서 개발된 지역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획득했다는 점과 서해를 거쳐 중국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문호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뒷날 삼국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의의를 가진 것이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점유한 이후 즉위 16년(555) 10월 북한산에 순행하여 강역을 확정하였다. 11월 돌아와서는 거쳐 온 州郡의 일년 간 租와 調를 면제해 주고 그 지역의 죄수 가운데 두 가지 사형죄 이외는 모두 사면해 주는 관용을 베풀었다. 그리고 순수를 기념하여 포고령 성격의 巡狩碑를 北漢山에 세워 군사력의 우위를 과시하면서 민심을 수렴하고, 새로운 윤리관을 제시하였다.⁶⁾ 북한산 순수비의 내용으로는 신라의

-
- 5) 『삼국유사』 권제1 기이편 진흥왕조에서도 신라가 진흥왕 15년(554) 羅濟同盟體制에서 벗어나서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던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 6) 3개의 진흥왕순수비 가운데 北漢山碑만은 건립 연대를 알려주는 문자가 마멸되었기 때문에 그 비의 건립시기에 대한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즉 진흥왕 29년(568) 이후 건립설(金正喜·葛城末治·今西龍), 29년(568) 건립설(申景濬·崔南善·金允經·金昌鎬), 16년(555) 건립설(崔益翰·李丙燾·盧鏞彌) 등이 제기되었으며, 그 가운데 李丙燾는 22년(561) 이후 29년(568) 이전 건립설(1976)에서 16년(555) 건립설(1986)로 바꾸었다 (노용필,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 1996, pp.1~7. 참조). 여러 건립시기에 대한 주장 가운데 우선 29년(568) 황초령비·마운령비와 같은 시기 건립설의 근거로서는 북한산비에서의 隨駕人名 가운데 등장하는 南川軍主의 南川州가 진흥왕 29년 10월에 설치되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비롯해서 동일인의 관등이 같다는 점, 그리고 民心의 採訪과 忠信精誠의 무리에 대한 爵償의 약속 등 巡狩管境의 취지가 비슷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북한산비는 황초령비·마운령비와 다르게 제일 앞의 題記 부분에서 年月日의 기록이 없고, 紀事 부분의 내용에서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빈약함을 보여 주는 점, 그리고 隨駕人名의 일부는 중복되지만 인원의 수에서 큰 차이가 있고, 관등과 인명의 표기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같은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南川州는 원래 고구려의 남천현(南川縣)을 신라가 점유하고 설치한 州였기 때문에 진흥왕 18년(557)에 폐지하였다는 新州의 본래 이름이 南川州였던 것으로 보이며, 16년(555) 북한산비 수립 당시의 南川軍主의 존재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양자 사이의 같은 점보다는 차이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武力的인 우위를 내세우고, 霸州로서 지배자의 권위를 과시하는 한편, 臣民에게 ‘忠信精誠’의 윤리덕목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벼슬과 상을 내릴 방침을 포고하였다. 유교정치를 표방하면서도 霸道政治를 강조함으로써 뒷날 진흥왕 29년(568)에 黃草嶺과 磨雲嶺에 세운 순수비에서 강조한 王道政治의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며, 윤리덕목의 내용도 ‘대창’시기의 것에 비하면 아직 소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한편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확보한 여세를 몰아 동북지역으로의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북한산비를 세운 다음해인 진흥왕 17년(556)에 함경도 지역인 함흥과 이원 지역까지 점령하고 比列忽州(안변)를 설치함으로써 옛 동예의 동북지역을 완전히 점유하였다. 또한 18년(557)에는 國原小京(충주)을 설치하고, 귀족의 자제와 6부의 부호들을 이주케 함으로써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면에서 왕도에 버금하는 소백산맥 이북 중부 지역의 중심적인 거점으로 삼아서 한강 유역 지배의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눈부신 군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는 군사조직의 정비와 함께 신무기의 개발이라는 성과가 뒷받침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흥왕 19년(558) 나마 身得이 砲弩(돌쇠뇌)를 만들어서 성벽 위에 설치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무기로서 이후의 전투에서 크게 위력을 발휘하였다. 뒷날 태종무열왕 8년(661) 북한산성이 고구려군의 拋車(돌을 던지기 위해 사용한 수레)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돌쇠뇌를 설치하여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신라의 쇄뇌의 위력은 당에도 알려져 문무왕 9년(669)에는 弩師 仇珍川이 불러가 쇄뇌의 제작을 강요받은 적도 있었다. 『삼국사기』 직관하 무관조에서는 弩幢이라는 쇄뇌 전문의 특수부대도 편성되어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신무기가 삼국통일의 전쟁에서 크게 위력을 발휘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진흥왕은 북쪽 한강유역으로의 점유를 추진하는 한편, 낙동강의 서쪽 가야 지역으로도 진출을 모색하여 16년(555)에 比斯伐(창령)에 完山州(또는 下州)를 설치하여

본다. 양자 사이의 차이점은 곧 정치사상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선 題記 부분에서 북한산비에서는 ‘開國’이라는 年號를 표방하지 못하였고, 순수관경의 주체를 ‘眞興太王及衆臣等’이라고 하여 진흥왕의 위상이 아직 독존적인 위치에는 오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반면, 황초령비·마운령비에서는 ‘大昌’이라는 연호와 순수관경의 주체를 진흥왕 단독으로 기록하여 진흥왕의 위상이 중신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로 크게 격상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紀事 부분에서 북한산비에서는 무력을 과시하고 힘에 의한 군주라는 의미의 ‘霸王’를 칭한 것에 비해 황초령비·마운령비에서는 『書經』과 『論語』 등의 유교경전을 인용하여 天命사상과 王道政治를 표방하고, 黎庶(백성)에 대한 撫育을 강조하고, 아울러 더욱 정비된 윤리덕목을 제시하는 등 유교적 정치사상 면에서 크게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隨駕 인명 가운데 승려를 대동하고, 더욱 많은 수의 重臣들과 더욱 세분화된 실무 하급관료들을 수행케 함으로써 국왕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紀事 부분에서 ‘朕’·‘建號’·‘乾道’ 등의 표현은 한껏 고양된 왕권의 위상과 좀더 세련된 유교적인 정치사상을 나타내줌으로써 ‘개국’시기에 비해 ‘대창’시기에 들어와 격단의 정치사상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낙동강 서쪽의 가야 지역 진출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진흥왕 22년(561)에 세워진 『昌寧眞興王拓境碑』에 의하면 진흥왕과 갈문왕, 그리고 大等を 비롯한 중앙의 고위 관료, 軍主·幢主·道使 등의 지방관, 外村主 같은 지방의 재지세력가 등이 참여한 대규모의 君臣會盟을 개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해(562) 단행되는 고령의 大加耶 정벌을 위한 준비 모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⁷⁾ 『삼국사기』에서 가야가 반란하여 정벌한 것으로 기록한 것은 앞서 15년(554) 백제의 성왕이 신라를 공격할 때 (대)가야의 군대가 참여하였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진흥왕 23년(562) 이사부에 명하여 대가야를 정복하기에 이르렀고, 진흥왕 26년(565)에는 완산주를 폐지하고, 大耶州(합천)를 설치하여 낙동강을 건너서 서쪽 진출로의 거점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점유한데 이어서 비옥한 낙동강 유역까지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북 방향으로 멀리 함흥평야에까지 진출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진흥왕의 활발한 정복 사업은 北漢山의 순수비(진흥왕 16년)와 昌寧의 척경비(진흥왕 22년)가 웅변으로 증명하여 주고 있다.

한편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서해를 거쳐 중국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문호를 갖게 된 신라는 진흥왕 25년(564)부터 비로소 중국 남북의 여러 왕조와 사절을 직접 교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편재하여 중국대륙에 사절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나 백제의 사신 행차에 수반을 의뢰치 않을 수 없었다. 앞서 나물마립간 26년(381) 북조인 前秦의 苻堅에게 사신을 파견할 때는 고구려의 사절을 따라 갔으며, 법흥왕 8년(521) 남조의 梁武帝에게 사신을 파견할 때는 백제의 사절을 따라갔던 전례도 있었다. 그런데 진흥왕 25(564)년에 북제에 사신을 직접 파견한 이후 부터는 거의 매년 중국의 북조인 北齊와 남조인 陳에 사신을 파견하였다.⁸⁾ 뒷날 진평왕대(579~632) 이후 중국대륙을 통일한 隋·唐과 친선을 도모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하고, 마침내 당의 힘을 빌려 다른 두 나라를 멸망시켜 3국을 통일하게 되는 단서가 되었다. 그런데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통로의 확보는 정치적인 면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선진문화를, 이전 같은 고구려와 백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케 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일찍이 진흥왕 10년(549) 봄에 양의 사신이 유학승 覺德과 함께 불사리를 가져오는데 왕이 백관에게 흥륜사 앞길에서 맞이하게 한 것을 효시로 하여 26년(565) 진의 사신 劉思와 승려 明觀이 불

7) 『창령 진흥왕척경비』는 단순한 君臣會盟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개척과 지방민의 통치에 관한 포고령으로서의 성격도 가졌던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진흥왕의 영역확장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盧鏞弼,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 참조)

8) 『삼국사기』 진흥왕조에 의하면, 북조인 北齊(550~579)에는 진흥왕 25년·33년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26년에는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으로 책봉을 받았다. 한편 남조인 陳(557~589)에는 진흥왕 27년·28년·29년·31년·32년·진지왕 3년 등 거의 매년 사신을 파견하였고, 진흥왕 26년에는 陳의 사신 劉思가 승려 明觀과 함께 불교경전 1,700여 권을 가져왔다. 다음해 祇園寺와 實際寺를 창건한 것은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교의 경론 1,700여 권을 가져옴으로써 신라는 비로소 불사리와 불교경전을 함께 갖추게 되었다. 중국과의 불교 교류는 진평왕대 이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西學’이라 하여 중국에 유학하는 자의 대부분이 승려였다. 이들은 또한 종교와 사상으로서의 불교뿐만 아니라 한문과 유교를 포함한 중국문화 수입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친정을 선포한 진흥왕에게는 영토 확장과 대외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는 한편 개국이라는 연호의 표현에 걸맞는 왕권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군사조직 정비 이상의 사상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진흥왕이 국왕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선택한 것은 음악을 통한 백성의 교화였다. 진흥왕은 친정을 시작한 첫해인 12년(551) 지방을 순행하면서 娘城(충북 청원)에 이르러, 대가야에서 망명해온 于勒과 그 제자에게 가야금을 연주하게 하고, 다음 해에는 3인을 선발하여 우륵에게 가야금·노래·춤 각기 배우도록 하고 연주케 하였다. 유교적인 王道政治에서는 禮樂刑政의 4요소를 중시하여 사회교육과 국가통치에 이용하였다. 특히 樂은 禮와 함께 중요시되어 예는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악은 인심을 화합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⁹⁾

한편 진흥왕은 유교적인 교화사업과 함께 새로운 왕궁과 장려한 사찰의 건설이라는 토목사업을 추진하였다. 사로국 시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왕궁인 月城은 경주 분지 남쪽 한편의 南川(蚊川)가에 치우쳐 자리함으로써 앞서 자비마립간대(458~478)부터 坊里制가 시행되고 2개의 市場이 설치될 정도의 도시로 성장한 왕경의 궁궐로서는 부적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껏 고양된 왕권과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수용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너무 비좁고 초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왕궁을 왕경의 중앙부의 평지로 옮겨 그 규모와 외양을 한층 장대하고 화려하게 치장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나아가 왕궁뿐만 아니라 그를 주축으로 하여 정연한 방리제와 도로망, 그리고 사방 화물의 집산 장소인 시장을 갖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왕경을 설계하게 되었다. 또한 왕실불교·국가불교를 상징하는 거대한 불교사찰을 갖춘 사상과 종교의 중심지로서의 새로운 왕경의 건설을 기획하게 되었다.¹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진흥왕 14년(553) 2월 왕이 월성 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도록 하였는데, 공사를 추진하던 도중에 黃龍이 나타나서 불교 사찰로 고쳐서 짓도록 하고, 사찰 이름을 ‘皇龍寺’라고 하였다는 설화를 전하고 있다. 이로써 새로운 궁궐의 창건 작업은 실제로 추진되다가 어떤 특별한 사유로 사찰의 창건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바뀐 이유로서 황룡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가 원래 많은 물이 고여 있던 저습지였다는 사실과 뒷날 사찰의 이름을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皇龍寺’로

9) 『삼국사기』 잡지에서 樂條를 별도로 편성하여 가야금을 비롯한 음악에 관한 자료를 자세히 모아 놓은 것은 유교사관의 입장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였다.

10) 주보돈, 「皇龍寺의 創建과 그 의도」, 『한국사연구』 176, 한국사연구회, 2017.

이름 지으면서 창건연기설화로 부회된 것 같다. 그 결과 습지는 龍神신앙과 결부되어 중앙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붙은 黃龍이 머무는 신성한 龍宮으로 설정되었고, 또한 그 용궁의 북쪽과 남쪽 지역에 각각 분황사와 황룡사가 창건되면서 ‘前佛時代의 七處伽藍’의 터로 신앙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룡사의 장육존상이 자리한 곳은 과거불인 迦葉佛이 설법하던 宴坐石의 자리였다고 설명되면서 신성시되었다. 실제 황룡사 자리는 경주분지의 중앙지점으로서 동서에 위치한 명활산과 서악(선도산), 남북에 위치한 남산과 금강산을 각각 연결하면 두 선이 만나는 십자로 지점에 해당하는 곳이다. 따라서 경주분지의 거의 중앙부에 새로운 궁궐을 건설하려고 한 것은 강력한 왕권의 위상에 걸맞는 토목사업으로 구상되었을 만 하였다. 새로운 궁궐의 창건을 시도했던 시기를 전후하여 진흥왕 12년(551)과 15년(554) 명활산성을 수축·개축하였던 사실도 새로운 궁궐의 창건과 함께 추진된 왕경의 도시계획과 무관할 수 없다. 결국 새로운 궁궐의 창건은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왕경 주위 산성인 명활산성·남산산성·서형산성(선도산성)의 수축공사는 뒷날 진평왕 13년(591)과 15년(593)에 재개되었다. 왕경의 중심지점에 강화된 왕권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궁궐을 창건하려는 계획을 갑자기 바꾸어 새로운 사찰을 창건한 것은 불교를 새로운 지배이념으로 삼아 왕권의 강화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불교 사찰이 바로 궁궐 못지 않는 왕권의 상징이자 국가불교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시설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궁궐의 창건공사가 중단되고, 갑자기 새로운 사찰의 창건공사로 바뀌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서는 진흥왕 12년(551) 한강 상류 지역의 고구려 10군을 점령할 때 고구려 승려 혜량(惠亮)이 망명해 온 사건,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북방불교의 왕즉불(王即佛)사상의 전래와 혜량의 국통(승통) 임명과 승관제의 정비 등 불교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大昌’기 진흥왕순수비와 유교정치이념

다음 제3기인 ‘大昌’기 4년간(진흥왕 29~32년)은 한강 유역에 南川州(주치는 利川), 강원도 북부와 함경남도 남쪽 지역에 達忽州(주치는 高城)를 각각 설치하여 국경지역을 안정시키고, 진흥왕이 직접 순행하여 유교적인 왕도정치와 이상적 제왕상, 그리고 신민에 대한 새로운 윤리관 등을 제시하는 포고령 성격의 순수비를 수립하였다. 마지막 제4기인 ‘鴻濟’기 5년간(진흥왕 33~37년)은 불교적인 이상적 제왕인 전륜성왕의 출현을 염원하여 황룡사의 장육존상을 조성하고, 미륵불의 화신으로 만들어진 화랑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조직을 정비하였다. 결국 제3기와 제4기는 제2기의 왕권강화와 영역확장에 성공한 구체적인 정치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사상적으로 정복군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이념을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였

던 시기였다. 그 가운데 특히 제3기는 진흥왕 순수비의 수립, 제4기는 황룡사 장육존상의 조성으로 그 정점을 이루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진흥왕 순수비가 유교적인 왕도정치와 중국의 이상적 제왕상, 황룡사 장육존상이 인도의 불교적인 이상적 제왕인 전륜성왕을 염원함으로써 두 시기의 사상정책이 유교와 불교로 확연히 구분되어 대조를 이루었다는 점인데, 연호를 유교적인 변창의 뜻인 ‘대창’과 불교적으로 널리 제도한다는 의미의 ‘흥제’로 각각 구분하였던 취지와 일치된다.

제24대 진흥왕 29년(568)에 大昌(또는 太昌)으로 연호를 변경하고, 동북쪽 국경지역을 순행하면서 황초령과 마운령 등 2곳에 포고령 성격의 순수비를 세워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표방하였다. 진흥왕은 순수비에서 정복군주로서의 정통성, 그리고 유교적인 왕도사상과 새로운 사회윤리관을 제시하였다. 앞선 시기인 ‘開國’기 연간에 이룬 왕권강화와 영역확장의 업적을 바탕으로 하여 위대한 정복군주로서의 위상을 유교의 이상적 제왕상으로 포장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대창’ 연호를 사용한 4년간의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조의 기사 가운데서 대내적인 사실은 대창 원년(568) 10월 北漢山州를 폐지하고 南川州를 설치하고, 比列忽州를 폐지하고 達忽州를 설치하여 서북쪽과 동북쪽 국경지역의 지방통치조직을 재정비했다는 것뿐이다. 그 외의 대외적인 기사 3건은 모두 남조왕조인 陳에 3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이 전부이다. ‘대창’기에 진흥왕의 유교적 정치사상을 집약적으로 전해주는 자료는 「진흥왕 순수비」이다. 진흥왕은 새로 점유한 국경지역을 巡狩하면서 여러 곳에 그 취지를 새긴 비석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北漢山碑·昌寧碑·黃草嶺碑·磨雲嶺碑 등 4개이다. 이 가운데 북한산비는 진흥왕 16년(555), 창령비는 진흥왕 22년(561)에 각각 수립되어 영역확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던 ‘개국’시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는 진흥왕 29년(568)에 세워진 것으로 유교정치이념을 추구하던 ‘대창’시기에 해당된다. 또한 창령비를 제외한 나머지 3비의 서두에는 ‘巡狩管境’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순수비로 보는 반면, 창령비는 ‘순수관경’이라는 명기가 없어 ‘拓境碑’로 구분된다. 순수비 가운데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는 대창(『삼국사기』)와 다르게 순수비에서는 ‘太昌’으로 표기됨)으로 연호를 변경하던 첫해에 수립된 것인데, 그 비석의 위치로 보아 당시 신라의 동북쪽의 영역이 함경남도의 咸興과 利原에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국’과 ‘대창’ 두 시기의 비석의 내용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앞선 시기의 비석에 견주어 다음 시기의 비석에서 진흥왕의 정치적 위상과 유교적인 정치사상이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수립된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는 비문의 구성과 내용이 동일하고, 왕을 수행한 인물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마운령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석은 앞면(陽面)과 뒷면(陰面)으로 구성되었다. 앞면의 비문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 제1행 제1자에서 제2행 제2자까지의 題記 부분 28자, 둘째 제3행 제1자에서 제9행 제7자까지의 紀事 부분 163자, 셋째 제10행 제1자에서 제25자까지의 廻駕 부분 25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뒷면의

비문은 隨駕人名의 列記 부분 199자로 구성되어 있다. 비문 내용 가운데서 제왕의 순수 당위성과 비석 수립의 취지를 기록한 題記 부분과 紀事 부분의 단락을 나누어 번역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A-1: 太昌 원년 歲次 戊子(필자: 진흥왕 29년, 568) 8월 21일 癸未에 眞興太王이 管轄 地境을 巡狩하고 돌에 새겨 기록하였다.

A-2: 대저(仁德의) 純風이 불지 않으면 세상의 道理가 참다움에 어긋나고, 德化的 취지가 널리 퍼지지 않으면 邪惡한 것이 서로 경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帝王이 年號를 세움에 자신의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음이 없었다.

A-3: 그러나 朕은 하늘의 運數가 몸에 이르러 위로는 太祖의 기틀을 이어받아 왕위를 계승하여 몸을 조심하며 스스로 삼가하면서 하늘의 도리를 어길까 두려워했다. 또한 하늘의 은혜를 입어 運數를 열어 보여주며, 명명한 가운데 神祇에 감응되어 符命에 감응하고 箚(竿)에 부합하였다.

A-4: 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게 되었고, 이웃 나라들은 신의를 맹세하고 和親의 使臣이 서로 통하여 오고 있다. 아래로 스스로 헤아려 새로운 백성과 옛 백성을 (같이) 어루만져 기르고 있으나, 오히려 말하기를 王道의 德化가 고루 미치지 아니하고 은혜가 두루 베풀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

A-5: 이에 戊子年(필자: 진흥왕 29년, 568) 가을 8월에 관할 지경을 순수하여 민심을 살펴 위로하고 물건을 내려주고자 한다. 만약 충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거나, 재주가 뛰어나 재난의 機微를 살피고 적에게 용감하고 싸움에 강하며,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한 공적이 있는 무리에게는 벼슬과 물건을 상으로 더하여 주어 功勳을 표창할 것이다.¹¹⁾

11) 진흥왕순수비 가운데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앞면의 원문을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가로 안의 문자는 「마운령비」에서 결락된 것을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황초령 진흥왕순수비」의 문자로 보충한 것이고, 글자를 띄운 것은 필자의 판단이다.

A-1: 太昌元年 歲次戊子 (八月)廿一日(癸未 眞)興太王 巡狩(管境) 刊石銘記也. A-2: 夫純風不扇 則世道乖眞 卞化不敷 則耶爲交競 是以帝王建号 莫不修己以安百姓. A-3: 然朕歷數當躬 仰紹太祖之基 纂承王位 兢身自慎 恐違乾道 又蒙天恩 開示運記 冥感神祇 應符合箚. A-4: 因斯四方託境 廣獲民土 隣國誓信 和使交通 府自惟付 撫育新古黎庶 猶謂道化不周 恩施未有. A-5: 於是 歲次戊子秋八月 巡狩管境 訪採民心 以欲勞賚 如有忠信精誠 才超察厲 勇敵強戰 爲國盡節 有功之徒 可加賞爵 (物)以章勳効. (이하 回駕 부분 25

이상에서 인용한 비문 가운데 먼저 자료 A-1의 제목에서 진흥왕 29년(568)에 순수하여 기록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太昌이라는 연호와 眞興太王이라는 왕호이다. 마운령 순수비보다 7년 앞선 진흥왕 22년(561)에 세운 「창령 진흥왕척경비」에서는 제일 앞에 “辛巳년 2월 1일 세운다”라고 하여 ‘개국’이라는 연호는 밝히지 않고 간지로만 연도를 표시했었는데, 이 순수비에서는 ‘태창’이라는 연호를 제일 앞에 밝힘으로서 제왕으로서의 정치의식이 크게 고양된 것을 나타내 준다. 특히 진흥대왕은 시호가 아니고 생전에 사용한 왕호였으며, 왕을 수행한 관료들의 이름 앞에는 예외 없이 소속 부명을 밝히고 있는데 반하여 진흥왕은 소속 부명을 붙이지 않고 큰 왕, 또는 왕중의 왕이라는 의미의 대왕(태왕)이라는 칭호를 붙였다.¹²⁾ 그리고 순수비의 의미가 원래 『禮記』에 의하면 제왕이 왕경을 떠나 지방에 순행하면서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제후를 모아 민심의 동향을 살피고 예악의 제도를 바로 잡는 등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인데, 진흥왕의 순수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순수비의 수립 장소로서 북한산 비봉·황초령·마운령 등 높은 산 위를 택했던 것은 산천이나 하늘에 대한 제사 의례나 하늘에 대한 誓約 관념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같은 순수비이면서도 진흥왕 16년(555)에 수립된 북한산 순수비에서는 연호를 표기하지 않고, “眞興太王及衆臣等 巡狩管境之時記”라고 하여 순수비의 주체자로서 진흥왕과 함께 衆臣을 나란히 들고 있어서 아직 왕이 독존적인 위상에 오르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지증왕 4년(504)의 「영일 냉수리비」와 법흥왕 11년(524)의 「울진 봉평비」의 단계에서와 같이 왕과 중신이 회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명의로 敎諭를 내리던 6부체제의 전통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다음 紀事 부분 A-2에서는 帝王 巡狩의 주체자인 진흥왕¹³⁾으로서 먼저 『書經』의 왕도정치 구현의 의지를 전제하고 제왕의 연호 세우는 뜻이 자신의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데 있음을 『論語』 憲問篇을 인용하여 천명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태창

자는 생략함)

- 12) 지증왕 4년(503)에 수립된 「영일 냉수리비」와 법흥왕 11년(524)에 수립된 「울진 봉평비」에서는 왕도 예외 없이 이름 앞에 소속부의 이름을 명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교의 공인과 상대등의 설치 등을 통하여 국왕의 위상이 6부체제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존재로 상승되면서 대왕(또는 태왕)을 칭하게 되고 더 이상 소속부명을 붙이지 않았다. 「천전리서석」 乙卯銘에 의하면 법흥왕 22년(535)에 ‘성법흥대왕(聖法興大王)’이라는 왕호를 사용한 반면 ‘탁부’라는 소속부의 표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앞선 시기인 법흥왕 11년(524)의 「울진 봉평비」에서 법흥왕의 표기를 ‘啄部 牟卽智寐錦王’이라고 하여 소속부명을 밝힌 반면, 마립간과 같은 의미의 ‘寐錦王’이라는 왕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왕의 위상이 크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 13) 진흥왕순수비의 주체가 진흥왕 자신임을 유의하면 실제적인 찬술자로서 별개의 문사(文士)를 추정하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 물론 대필자로서 실제적인 찬술자를 상정할 수는 있으나, 진흥왕의 의사를 대필한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본다.

으로 연호를 고치고 순수에 나서게 된 이유와 당위성을 밝힌 것이다. 원래 유교적인 전통에 의하면 연호는 황제만이 세울 수 있는 것이며, 다음 구절에 나오는 '짐(朕)'이라는 용어도 황제만이 자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秦의 始皇帝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순수비를 세우기 7년 앞선 진흥왕 22년(561)에 세운 「창령 척경비」에서 “寡人은 어려서 왕위에 올라 정사를 보필하는 신하에게 맡겼다”라고 하여 ‘과인(寡人)’이라는 제후의 謙稱語를 사용했던 것에 비하면 태창이라는 연호를 새로 제정하면서 진흥왕의 위상이 제후에서 황제로 크게 격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 A-3에서 태조로부터 왕통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왕으로서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 것은 자신이 天命을 받은 중국의 천자에 필적할 정도의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書經』 大禹謨에 나오는 乾道를 어길까 두렵다고 하여 유교의 天命思想과 王道思想을 구현하는 제왕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A-4에서 진흥왕은 그러한 제왕의 권위로 영역을 개척하고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였고, 진흥왕 25년(564)부터 이웃 나라들(중국의 북조 北齊와 남조 陳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과 빈번히 사신을 교환하게 되었음을 특기하였다. 그리고 새로 복속된 지역의 백성을 원래의 신라인과 같이 撫育하려고 하였으나, 왕도의 덕화가 고르게 미치지 못하다는 臣民의 불평을 염려하는 뜻을 밝혔다. 새로 복속된 지역의 주민을 원래의 신라인과 같이 撫育하였다는 것은 앞서 법흥왕 11년(524)의 「울진 봉평비」에서 새로 편입된 지역의 주민을 ‘奴人’이라 하여 차별하였던 것에 비하면 주민통치의 면에서 커다란 정치사상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흥왕 16년(555)의 「북한산 순수비」에서 무력의 우위를 앞세운 霸道政治를 표방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도 유교적인 정치사상의 면에서 커다란 발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개국’시기에 비하여 ‘태창’ 시기는 유교적인 정치사상이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의 자료 A-5에서는 진흥왕이 몸소 지방을 순수하여 민심을 살펴서 위로하고 물건을 내려주겠다고 하여 민심을 수렴하려는 취지를 밝히었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충성과 신의, 재주와 용기 등으로 국가에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는 벼슬과 상품으로 표창할 방침임을 밝히는 것으로써 포고령 성격의 紀事 부분을 마감하였다. 진흥왕이 제시한 충성(忠)·신의(信)·용기(勇) 등의 윤리덕목은 화랑도의 이른바 世俗五戒의 핵심적인 덕목이 되는 것이다. 진평왕 22년(600) 圓光이 귀국한 직후 貴山과 籌項이라는 젊은 이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세속오계 같은 윤리덕목 가운데서 특히 핵심적인 요소인 忠·信·勇은 이미 진흥왕대의 ‘개국’ 시기부터 요청되고 있었고, 또한 斯多舍 같은 청소년들에 의해 실제적으로 실천되고 있었다. 진흥왕 23년(562) 대가야를 정벌할 때에 사다함은 15~6세의 花郎으로서 5,000명의 낭도들을 이끌고 참전하여 선봉으로서 으뜸의 공을 세웠으며, 그 공적으로 포로와 田地를 상으로 주자, 포로는 모두 풀어주고 전지는 전사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武官郎과 死友를 맺어 그가 먼저 죽자, 슬퍼한 나머지 7일 만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 나이가 17세였다. 이로써 불교식

이름을 가진 斯多含(聲聞4果의 하나인 斯陀含果)은 충·신·용의 윤리덕목을 그대로 실천한 화랑도의 청소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운령 순수비』의 뒷면에는 왕을 수행한 신료들의 이름(隨駕人名)을 列記하였는데, 沙門道人 2인, 최고귀족회의 구성원인 大等 7인, 기타 왕의 행차와 궁중업무 등에 종사하는 하급신료 다수의 명단으로 구성되었다. 이 명단에서 우선 주목되는 점은 제일 앞에 사문도인으로 法藏과 慧忍을 들고 있는데, 다음 大等 이하의 관직을 가진 일반 신료들과 구별되게 한 칸 공백을 둔 것이다. 이는 승려들이 일반 관료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일반 관료들은 “관직 + 소속부 + 이름 + 관 등”의 순서로서 예외 없이 이름 앞에 소속부의 이름을 붙이고 있었던 데 반하여 승려들에게는 소속부를 붙이지 않았다. 이는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6부체제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지위를 갖게 된 존재로서 국왕과 함께 불교 승려들의 존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부족의식을 극복하고 국가정신을 수립하는데 불교 승려가 담당했던 선구적 역할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반면 일반 관료들에게 소속부를 예외 없이 붙인 것은 아직 6부체제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왕과 승려들의 경우와 달리 관료들은 7세기 후반인 ‘중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소속부의 관칭이 없어짐으로써 6부체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다.

V. ‘鴻濟’기 황룡사장육존상과 불교정치이념

진흥왕은 ‘大昌’의 연호를 제정한지 4년만인 즉위 33년(572)에 연호를 다시 ‘鴻濟’로 바꾸었다. 흥제는 널리 제도한다는 의미의 불교적인 용어인데, 왜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추구하던 시기의 연호인 대창을 4년만에 버리고 갑자기 불교적인 의미를 가진 흥제라는 연호로 바꾸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33년 조에는 3월에 왕태자 銅輪이 사망하고, 10월 20일에 전쟁에서 죽은 사졸들을 위하여 지방의 사찰에서 八關筵會를 열어 7일만에 마쳤다는 기사가 대내적인 사실의 전부이다. 동륜은 진흥왕의 맏아들로서 일찍이 진흥왕 27년(566)에 王太子로 책봉되었는데, 그 해는 황룡사가 준공되고, 祇園寺와 實際寺가 새로 창건된 때였다. 진흥왕이 일찍이 왕태자를 책봉한 것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하여 안정적인 왕위계승을 위한 조치였는데, 6년만인 33년(572)에 돌연 사망함으로써 진흥왕의 상심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맏아들에게 불교적인 이상적 제왕인 轉輪聖王의 하나인 銅輪(聖王)으로 이름을 지어주어 위대한 제왕이 되기를 염원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진흥왕의 실망은 더욱 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팔관연회는 재가신도가 하루밤 하루낮 동안 8가지의 계율을 지키는 법회인데, 중국의 남북조에서 행해지던 것이다. 이러한 호국법회

가 신라에서 처음 개설된 것은 고구려에서 망명해온 惠亮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년 뒤(574)에 황룡사의 丈六尊像을 조성하였으며, 그 다음해 장육존상이 눈물을 흘린지 1년만에 진흥왕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적기하였다. 그밖에 『삼국사기』 진흥왕조에 기록된 ‘홍제’시기 5년 동안의 기사는 33년(572) 北齊에의 사신 파견, 36년(575) 봄과 여름 가뭄의 기상 이변, 그리고 37년(576) 화랑도의 설치¹⁴⁾와 유학승 安弘의 귀국¹⁵⁾ 등 4건의 사실이 전부이다. 이로써 홍제로 연호를 바꾼 뒤 5년간의 내용은 불교 관련 사실이 거의 전부였음을 알 수 있는데, 불교 관련 기록이 전연 없었던 대창 연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제로의 연호 변경은 이들 불교적인 사실들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특히 장육존상의 조성은 이 기간의 불교 관련 사건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다. 진흥왕대의 장육존상은 다음 선덕여왕대의 9층목탑과 아울러 신라 호국불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황룡사의 장육존상은 오늘날까지 황룡사지 중금당 자리에 남아있는 거대한 대석을 통해 웅장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대석에는 불상의 두 발을 끼웠던 부분과 광배를 꽂았던 자리까지 남아있다. 장육존상은 일장육척(一丈六尺)이라는 의미로서 높이 16자의 입상을 말한다. 신라 당시 척도인 周尺(일명 唐小尺 : 24.5cm)이나 唐尺(일명 唐大尺 : 30cm)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불상의 높이는 3.92m, 혹은 4.80m 전후로 추정된다. 그리고 무게는 구리 35,700근, 황금 10,198푼으로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이 일치한다. 장육존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형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첫째 중국 사천성 성도에서 전해오는 남북조시대 阿育王像들과 같이 인도조각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국적인 불상, 둘째 6세기 北魏 내지 東·西魏 양식의 불상, 셋째 인도식 阿育王像이 중국적으로 토착화된 형식의 불상 등의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장육존상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나 실물을 추정할만한 단서가 전연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구는 무의미하다.¹⁶⁾

원래 황룡사는 진흥왕 14년(553)에 공사를 시작하여 27년(566)에 일단 공사를 마쳤고, 이어 30년(569)에 주위 담장의 공사까지 마침으로써 완성하였다. 그런데 준공된 지 5년 뒤인 35년(574)에 주불인 장육존상을 새로 조성하고, 진평왕 5년(584)에 금당을 다시 건

14) 『삼국사기』 진흥왕37년조에서는 이때 처음 源花徒를 시행하였다가, 이후 花郎徒로 바꾼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화랑도는 그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진흥왕 23년(562) 대가야를 정벌할 때에 斯多舍이 화랑으로서 낭도 5,000명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여 발군의 전공을 세운 바 있었다. 『삼국사기』 열전 사다함전에서도 불교식의 이름을 가진 사다함은 화랑도 윤리의 핵심 덕목인 忠·信·勇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던 사실을 특기하였다.

15) 安弘은 興輪寺金堂十聖 가운데 1인으로 추앙된 安舍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데, 『해동고승전』 안함전에 의하면, 진평왕 23년(601) 隋에 유학 가서 27년(605)에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삼국사기』 진흥왕조의 기사는 착오로 보인다.

16) 김혜경, 『신비의 장육존상』 『황룡사』, 국립경주박물관, 2018, p.158.

축했다는 것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하였다.¹⁷⁾ 학자들 사이에는 진흥왕 30년의 준공 때에는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¹⁸⁾ 처음에 조성된 불상을 폐기하였다거나,¹⁹⁾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35년에 장육존상을 새로 조성하여 봉안했다는 주장도 있다.²⁰⁾ 그런데 주위 담장 공사까지 마치면서 본존불상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또한 처음에 조성한 불상을 폐기하였다는 것도 불상이 신성한 예배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장육존상을 새로 조성하고, 금당을 다시 건축할 때에 다른 곳에 새로 東竺寺라는 사찰을 세워 이전의 불상을 옮겨 임시로 봉안하였으며, 장육존상이 조성된 뒤에 다시 황룡사로 옮겨 중금당 이외의 다른 불전(좌우 금당 가운데 한 곳)에 봉안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¹⁾ 그런데 1976~1983년의 발굴조사 결과 초창 가람은 1탑1금당식이었으나, 이후의 중창 가람은 1탑3금당식의 병렬형인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²²⁾ 즉 새로 주조한 장육존상을 봉안하기 위해 진

-
- 17) 황룡사 장육존상의 높이는 4m 이상, 무게는 11톤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대형 불상은 기단을 만들어 먼저 불상을 주조해 모신 뒤, 나중에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진흥왕 35년(574)에 불상을 주조하고, 진평왕 5년(584)에 금당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진평왕은 즉위 6년(584) 금당을 준공할 때까지 진흥왕 때의 연호인 鴻濟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이때 비로소 연호를 建福으로 바꾸고 있었는데, 즉위 6년 이전까지는 진흥왕의 불교정책이 그대로 계승되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18) 남동신, 『新羅中古期 佛敎治國策과 皇龍寺』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2, 2001,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원.
- 19) 노중국, 『신라 흥륜사 彌勒像과 황룡사 丈六尊像 그리고 진흥왕과 거칠부』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7, 2016,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원, pp.117~146 참조. 이 논문에서는 처음 조성되어 폐기된 불상이 미륵불상이었다고 추측하였는데, 『삼국유사』 황룡사 장육조에서 天竺의 阿育王이 불상재료와 함께 보내온 불상이 석가3존상이었다고 분명히 언급한 것을 보아 처음의 불상도 석가3존상으로 보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또한 미륵불과 석가불의 관계를 국왕과 귀족세력의 문제에 직접 대입하여 대립 갈등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사상사의 문제를 사회사적인 방법으로 잘못 접근한 이기백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결과이다. 흥륜사의 미륵불에 대하여 황룡사의 석가불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서 석가3존상의 조성이 미륵신앙과 전륜성왕 관념을 완성시켰다는 의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0) 이기백,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時代 國家佛敎와 儒敎』, 1976 : 『新羅思想史研究』 제수록, 1986.
- 21) 『삼국유사』 탑상제4 황룡사장육조에서 “불상(새로 조성한 금동장육존상)이 이루어진 뒤에 東竺寺의 3존불상도 (이) 절로 옮겨 안치하였다”고 한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西天竺(인도)의 阿育王이 황철(구리)과 황금의 불상 재료와 함께 보내왔다는 3존상은 실제 신라 어디선가 옮겨온 것일 텐데, 황룡사에 봉안되었던 원래의 불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그 불상을 황룡사에 다시 옮겨 안치했다는 『삼국유사』 황룡사장육조의 기록은 이에 대한 유일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東竺寺’라는 사찰 이름은 아육왕과 관련된 연기설화에 따라 붙여진 것으로 본다.

평왕 6년(584) 새로운 금당을 조성할 때에 1탑1금당의 초창가람과 다르게 1탑3금당으로 조성하여 중금당에는 장육존상, 좌우의 금당 가운데 한쪽에 초창 때의 불상을 봉안했던 것으로 추측되며,²³⁾ 전후 불상 모두 석가3존상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 장육3존불상은 9층목탑과 함께 고려 고종 25년(1238) 몽골의 병란으로 불타 없어지고 작은 석가불상만이 남아있음을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은 증언하고 있었는데, 이 작은 석가불상이 초창 때의 불상이었는지도 모른다.

황룡사 장육존상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황룡사장육조에서 연기설화의 형태로 전해주는데, 『別傳』·『寺中記』·『別本』·『別記』·『寺記』 등 여러 종류의 자료에 각각 전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승 자료에 따라 설화 내용에서 다소 다른 사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삼국유사』 황룡사장육조의 내용을 자료별로 구분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B-1: 신라 제24대 진흥왕 즉위 14년 癸酉(553) 2월에 궁궐을 龍宮의 남쪽에 지으려고 하였는데, 황룡이 그 곳에 나타났으므로 이를 고쳐서 절로 삼고 황룡사라고 하였다. 己丑年(569)에 주위의 담을 쌓고 17년만에 완성하였다. (그 뒤) 얼마 아니되어 바다 남쪽에 큰 배 한 척이 나타나서 河曲縣 絲浦(지금의 울주 곡포)에 와 닿았다. 검사해 보니 공문(牒文)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西天竺의 阿育王이 黃鐵(구리) 5만7천근과 황금 3만푼을 모아서 (『別傳』에는 철 40만7천근, 금 1천량이라고 했으나, 아마 잘못된 것 같다. 혹은 3만7천근이라고도 한다) 석가3존상을 주조하려고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22) 1탑3금당 양식의 가람 구조는 고구려 청암사지의 금당 양식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금당이 탑을 북과 동·서에서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황룡사는 3개의 금당이 탑을 향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였다. 이로 말미암아 전형적인 1탑3금당 양식에서 변형된 것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동금당과 서금당은 금당이 아니고 강당 같은 별도의 건물로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동금당지에서 대형 소조불편이 출토된 점, 서금당지에서 불교의식과 관련된 공양품이 발견된 점, 중금당과 나란히 양쪽에 대칭으로 배치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전이 아닌 강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필자는 처음 1탑1금당으로 조성되었다가 뒤에 대형 불상을 새로 조성하여 봉안하게 되면서 처음의 불상까지 봉안할 필요성에서 중금당 이외에 동·서 금당을 더 조성함으로써 독특한 양식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처음 모셨던 불상으로 추정되는 東竺寺의 3존불상을 황룡사로 옮겨 봉안하였다는 사실을 『삼국유사』 황룡사장육조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도 참고된다. 황룡사지의 발굴결과 초창가람은 1탑1금당의 양식이었으나, 이후의 중창가람은 1탑3금당의 병렬형의 양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단서)를 찾게 되었다.

23) 황룡사지 발굴 결과 동금당지 내부에서 잔존길이 9.5cm의 소조손가락이 출토되었는데, 일반적인 신라 불상의 신체 비례를 통해 추정해 보면, 4m 이상 되는 장육의 불상이 된다. 이로써 동금당지에는 금동장육존상과 다른 또 하나의 소조장육존상이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면서 축원하기를, ‘부디 인연 있는 국토에 가서 장육존상을 이루소서’라 하고, 아울러 한 부처와 두 보살의 상도 실었다.” 고을 관리가 문서를 갖춰 국왕에게 아뢰었더니, (왕은) 사자에게 명을 내려 그 고을 성 동쪽의 높고 깨끗한 땅을 골라 東竺寺를 창건하여 세 불상을 맞이해 모시도록 했다. 그 금과 황철은 서울로 수송하여 大建 6년 甲午(574) 3월(『寺中記』에는 癸巳 10월 17일이라고 하였다)에 장육존상을 주조했는데,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 무게는 3만5천7근으로 황금 1만1백98푼이 들었으며, 두 보살에는 철 1만2천근과 황금 1만1백36푼이 들었다. 황룡사에 모셨더니, 이듬해에 불상에서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내려 땅이 한 자나 젖었다. 대왕이 세상을 떠날 조짐이었다. 혹은 불상이 진평왕 때 완성되었다고 하나 잘못이다.

B-2: 『別本』에 말하기를, 阿育王은 인도 大香華國에서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뒤 1백 년만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眞身에 공양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금과 철 약간 근을 모아 3번이나 불상을 주조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번역문 중략) 아유왕은 (태자의) 말을 옮겨 여겨 (금과 철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냈다. 南閩浮提 16大國, 5백中國, 10천小國, 8만聚落을 두루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으나, 모두 주조에 성공하지 못했다. 최후로 신라국에 이르러 진흥왕이 文仍林에서 그것을 주조하여 불상을 완성하니, 모습이 다 갖추어졌다. 阿育을 번역하면 無憂라고 한다.

B-3: 뒤에 대덕 慈藏이 서방으로 유학하여 오대산에 이르렀더니, 문수보살이 現身으로 감응하여 비결을 주며 부탁하기를, ‘너희 나라의 황룡사는 바로 석가불과 가섭불이 강연하였던 땅이므로 冥坐石이 아직도 있다. 그러므로 인도의 無憂王이 황철 약간을 모아 바다에 띄웠는데, 1천3백여 년이나 지난 뒤에 너희 나라에 이르러 (불상이) 이루어져서 그 절에 모셔졌던 것이니, 대개 위덕의 인연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라고 하였다(『別記』에 실린 것과 똑 같다). 불상이 이루어진 뒤에 동축사의 삼존불상도 역시 이 절로 옮겨 봉안하였다.

B-4: 『寺記』에는 ‘진평왕 5년 甲辰(584)에 금당이 조성되었으며, 선덕왕 때 절의 첫째 주지는 진골 歡喜師, 제2대 주지는 자장 國統, 다음은 국통 惠訓, 다음은 龐律師이다’고 하였다. 이제 병화(몽골의 침입)가 있는 뒤 큰 불상과 두 보살상은 모두 녹아 없어지고, 작은 석가상만이 아직 남아있다.²⁴⁾

24) 『삼국유사』 권3 답상편 황룡사장육조의 원문을 문단을 나누어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B-1: 新羅第二十四眞興王 卽位十四年癸酉二月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 乃改置爲佛寺 號黃(皇)龍寺 至己丑年 周圍墻宇 至十七年方畢 未幾 海南有一巨舫 來泊於河曲縣之絲浦(今蔚州谷浦也) 檢看有牒文云 西竺阿育王 聚黃鐵五萬七千斤 黃金三萬分(別傳云鐵四十萬七千斤 金一千兩 恐誤 或云三萬七千斤) 將鑄釋迦三尊像 未就 載

이상에서 인용한 『삼국유사』 황룡사장육조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과 설화적인 허구가 혼합되어 있어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설화적인 내용도 결코 허구라고 하여 전연 의미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이 연기설화는 왕권강화와 국가발전, 특히 영역확장과 불교발전에 획기적인 업적을 달성한 진흥왕의 고양된 정치의식, 그리고 서쪽의 불교 나라인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정복군주인 阿育王(Asoka)에 견주는 위대한 제왕으로서의 자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흥왕이 새로 조성한 장육존상 앞에서 불교의 이상적인 제왕인 轉輪聖王(Cakra-vartī-rājan) 같은 위대한 제왕이 되기를 염원하였던 사실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진흥왕 5년(544)에 완성된 신라 최초의 사찰이 ‘大王興輪寺’로 사액되었는데, 이 사찰의 이름 속의 ‘輪’은 전륜성왕의 金輪이나 法王(부처)의 法輪을 가리킨다. 따라서 흥륜은 그러한 輪(수레바퀴)을 일으켰다는 뜻이지만, 이 사찰에 미륵불이 주존으로 봉안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輪은 전륜성왕의 金輪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미륵불이 교화할 때에 전륜성왕이 출현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흥륜사는 전륜성왕과 미륵신앙을 결합한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건립된 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과거의 석가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완공한 황룡사에는 主尊으로 거대한 석가불상을 조성하였던 것이며, 진흥왕의 전륜성왕 출현의 염원이 아育왕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연기설화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본다. 인도에서 출생하여 최초의 통일제국을 건설하고 불교를 크게 일으킴으로써 아育왕의 8만4천탑의 설화와 함께 아育왕불상의 전설을 전승케 한, 역사적 인물인 아育왕을 鐵輪聖王(무력전륜성왕)의 틀 속에 끼워 맞추려는 전설이 만들어져서 불교신앙과 함께 신라에 전해왔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황룡사장육조의 내용은 『別傳』·『寺中記』·『別本』·『別記』·『寺記』 등에 전하는 여러 종류의 전승 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연기설화의 집성이다. 그런데 설화

缸泛海而祝曰 願到有緣國土 成丈六尊容 并載模樣一佛二菩薩像 縣吏具狀上聞 勅使卜其縣之城東爽塏之地 創東竺寺 邀安其三尊 輸其金鐵於京師 以大建六年甲午三月(寺中記云 癸巳十月十七日) 鑄成丈六尊像 一鼓而就 重三萬五千七斤 入黃金一萬一百九十八分 二菩薩入鐵一萬二千斤 黃金一萬一百三十六分 安於皇龍寺 明年像淚流至踵 沃地一尺 大王升遐之兆 或云 像成 在眞平之世者 謬也.

B-2: 別本云 阿育王在西竺大香華國 生佛後一百年間 恨不得供養眞身 斂化金鐵若干斤 三度鑄成無功(時王之太子 獨不預斯事 王使詰之 太子奏云 獨力非功 曾知不就) 王然之 乃載缸泛海 南閩浮提 十六大國 五百中國 十千小國 八萬聚落 靡不周旋 皆鑄不成 最後到新羅國 眞興王鑄之於文仍林 像成 相好畢備 阿育此讎無憂.

B-3: 後大德慈藏西學到五臺山 感文殊現身授訣 仍囑云 汝國皇龍寺 乃釋迦與迦葉佛講演之地 宴坐石猶在 故天竺無憂王 聚黃鐵若干斤 泛海歷一千三百餘年 然後乃到 而國成安其寺 蓋威緣使然也(與別記所載符同) 像成後 東竺寺三尊亦移安寺中.

B-4: 寺記云 眞平(王)五年甲辰 金堂造成 善德王代 寺初主眞骨歡喜師 第二主慈藏國統次國統惠訓 次廂律師云 今兵火已來 大像與二菩薩皆融沒 而小釋迦猶存焉.

의 내용은 자료에 따라 약간의 다른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으나, 모두 석가3존상의 조성에서 인도(西竺)의 阿育王(Aśoka)은 실패하고, 신라(東竺)의 진흥왕이 성공하였다는 내용만은 일치한다. 아육왕 불상의 경우는 아육왕의 8만4천탑 설화와 함께 중국측 문헌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아육왕 불상에 대해서는 慧皎(497~554) 찬술의 『高僧傳』, 道宣(596~667) 찬술의 『廣弘明集』과 『三寶感通錄』 등의 문헌에서 발견된다. 황룡사 장육조의 기록과 유사한 내용도 있어 주목되는데, 東晉 때 丹陽의 長干寺와 荊州의 長沙寺에 모셨던 아육왕상은 물속에서 빛을 발하거나 홀연히 나타나는 이적으로 발견되어 절에 모셔졌으며, 그 뒤로 이 불상들은 국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리거나 스스로 법당 밖으로 걸어 나오는 神異를 일으켰다고 한다. 이와 같은 중국의 아육왕상 기록은 황룡사 장육존상에 대한 기록이 신라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전설이라기보다는 이와 비슷한 중국의 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석가3존상의 조성에서 西竺(인도)의 아육왕이 실패한 것을 東竺(신라)의 진흥왕이 성공하였고, 조성 다음해에 불상에서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내려 땅이 한 자나 젖게 한 이적이 진흥왕의 세상 떠날 조짐이었다는 등의 설화 내용은 신라에서만 전승되는 것으로서, 미륵불과 전륜성왕으로 구성되는 정치이념을 석가불의 조성을 통하여 한층 더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진흥왕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삼국유사』 황룡사장육조의 내용 가운데 특히 중요한 자료는 장육존상 조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전해주는 자료 B-1이다. 그런데 자료 B-2 『별본』에서는 다소 다른 사실을 전해주어 참고가 된다. 그에 의하면 아육왕은 인도 大香華國에서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뒤 1백년만에 태어나 眞身に 직접 공양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금과 황철(구리)을 모아 3번이나 불상을 주조했으나 실패하였다. 실패를 미리 예견하였던 태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료를 바다에 띄워 보냈으며, 南閩浮提(Jambu-dvīpa)의 16大國·5백中國·10천(1만)小國·8만聚落을 거쳐서 신라의 해안에 도달하여 마침내 진흥왕이 文仍林에서 불상을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원래 아육왕은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뒤 200년 즈음(B.C. 268~232년간에 재위한 것으로 추정)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을 건설하고 불법을 크게 일으켜서 불교적인 이상적 제왕인 전륜성왕으로 추앙되었다. 그런데 아육왕이 불상 제조에 실패한 반면, 그가 보낸 자료를 가지고 신라의 진흥왕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왕권을 강화하고 지배영역을 크게 확장한 진흥왕의 공지에 그대로 부합되는 것이며, 나아가 불교적인 이상적 제왕인 전륜성왕의 출현을 기대하는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 자료 B-3 『별본』과 『별기』에서 인용한 내용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은 慈藏이 중국 오대산에서 현신한 문수보살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즉 인도의 無憂王(아육왕)이 황철(구리) 약간을 모아 바다에 띄웠는데, 1,300여 년이나 지난 뒤에 신라에서 불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자장은 선덕여왕 14년(645) 황룡사에 9층목탑을 세우게 한

것으로 유명한데, 황룡사 9층목탑의 건립을 『찰주본기』에서는 南山 圓香禪師, 『삼국유사』 황룡사9층목탑조에서는 神人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²⁵⁾ 그런데 이 『삼국유사』 장육조에서 인용한 자료에서는 장육존상의 주조 사실을 문수보살이 확인하여 준 것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아 장육존상과 아육왕의 관계를 전해주는 설화는 신라에 다양한 내용으로 광범하게 유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진흥왕에게 있어서 아육왕, 그리고 전륜성왕이라는 불교적인 이상적 제왕의 정치적 이념은 대단히 깊고 넓게 각인되어 있었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진흥왕은 큰 아들을 銅輪, 둘째 아들을 舍輪(또는 金輪)이라고 명명하였다. 수미산세계설에 의하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의 勝身洲, 남쪽의 瞻部洲(또는 閻浮提), 서쪽의 瞿陀尼洲(또는 牛貨洲), 북쪽의 俱盧洲 등 네 개의 주(洲, 대륙)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데,²⁶⁾ 轉輪聖王(Cakra-vartī-rājan)은 4종의 德(長壽·無憂·顏貌·寶藏)과 7종의 보물(金輪·白象·紺馬·神珠·玉女·居士·主兵臣)을 가지고 수미 4대주를 통치한다고 생각되는 신화적 이상적 제왕이다.²⁷⁾ 전륜성왕은 威德에 따라 金·銀·銅·鐵의 4종으로 나뉘어 金輪왕은 須彌 4개洲, 은륜왕은 동·서·남 3개洲, 동륜왕은 동·남 2개洲, 철륜왕은 남섬부주 1개洲를 통치한다고 하며, 히말리아 남쪽의 인도 대륙을 통일한 아육왕은 철륜왕으로 비정된다.²⁸⁾ 또한 『仁王般若經』이나 『菩薩瓔珞本業

25) 오대산신앙과 자장의 관계 설화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장에게 9층목탑 조성을 지시한 사람은 남산(중남산)의 圓香선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26) 수미산세계설에 의하면 수미4주 가운데 瞻部洲, 또는 (南)閻浮提(Jambu-dvīpa)는 수미산의 남쪽에 펼쳐진 세계를 말하는데, 모양이 역삼각형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보아 히말리아산맥 남쪽의 인도대륙을 상징해서 설정된 세계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교적인 세계관에서는 남염부제는 인도대륙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 등의 동북아시아 지역도 포괄하는 세계로 인식되고 있다. (定方晟, 『인도宇宙誌』, 1984, 春秋社, pp.20~25. 참조)

27) 4종의 덕 가운데 특히 無憂는 Aśoka의 의역이고, 阿育은 음역이다. 그리고 7종의 보물 가운데 특히 輪·象·馬·居士·主兵臣 등은 전차병·코끼리병·기마병·상인·군사지휘관 등을 상징하는 말로서 전륜성왕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미한다.

28) 전륜성왕은 4종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위대한 첫째의 金輪성왕은 완전한 德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력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덕만으로 수미4주 전체를 통일하여 正法(dharma)으로 통치하는 세계제왕인데 비하여 4번째의 철륜성왕은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력을 아울러 사용하여 瞻部洲(남염부제) 1주만을 통일하여 통치하는 세계제왕이다. 역사적으로 인도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阿育王(Aśoka)이 철륜성왕에 비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전륜성왕에 비교되는 제왕으로 粟散國王(Pradeśa-rājan)이 있는데, 하나의 지방을 통치하는 소국의 왕이다. 속산국왕의 의미는 粟散邊土, 즉 무수한 좁쌀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수많은 소국들의 왕이라는 뜻이다. 須彌山世界の 南閻浮提에는 五天竺·十六의 大國·五百의 中國·十千의 小國·無量의 粟散國이 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속산왕은 인도의 16대국을 비롯한 소국의 왕들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중국의 제왕이나 신라의 국왕들도 속산왕에 속한다. 그런데 황룡사 장육존상 조성의 연기설화에서 신라의 진흥왕이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육왕이 불상 조성에 실

經』 등의 경전에서는 전륜성왕의 教義的 위치를 보살의 계위에 배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영락경』에서는 금·은·동·철의 4륜왕은 十信·十住·十行·十廻向의 보살의 계위에 역순으로 의설하기도 한다.²⁹⁾ 그런데 진흥왕이 자기 두 아들을 동륜과 사륜, 또는 금륜으로 명명한 것은 이러한 전륜성왕설에 입각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동륜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사륜은 원래 철(쇠)륜을 의미한 것이거나 사(舍)와 금(金)의 글자 모양의 유사성에서 발생한 판각과정의 혼동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형인 동륜이 진흥왕 27년(566)에 태자(太子)로 책봉되었다가 공교롭게 연호를 鴻濟로 변경하는 33년(672)에 사망하고, 뒤에 사륜이 왕위를 계승하여 25대 진지왕이 되면서 사륜이 金輪으로 해석, 존칭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³⁰⁾ 그런데 동륜과 사륜, 또는 금륜 이외에 銀輪이라는 명칭도 전승되고 있어서 흥미롭다. 1989년 경남 김해시에서 신라 경덕왕대(742~765) 김대문의 『花郎世紀』를 필사했다는 이른바 필사본 『화랑세기』가 발견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나, 검토 결과 위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지만, 필사본에서 진흥왕의 딸의 이름이 銀輪公主로 등장하여 주목된다. 만일 이 기록을 받아들이면 금·은·동·철의 4종 전륜성왕의 이름이 모두 등장하게 되어 진흥왕이 전륜성왕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더욱 부인할 수 없게 한다. 진흥왕은 황룡사에 장육존상을 조성함으로써 그 공덕으로 전륜성왕으로 비정되는 아육왕 같은 위대한 제왕이 되기를 염원하였고, 나아가 그 석가불상 앞에서 전륜성왕 같이 외적을 퇴치하여 영역을 확장하고, 통치하는 제왕이 되기를 기원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륜성왕의 이름을 붙여 위대한 제왕이 되기를 기대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본다.³¹⁾

VI. 맺음말

진흥왕은 재위 37만년에 세상을 떠나자 哀公寺의 북쪽에 장사 지냈다. 『삼국사기』에서는 앞선 법흥왕릉도 같은 장소로 전하는데, 오늘날 애공사의 위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흥왕릉과 진흥왕릉을 비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 경주 지역의 무덤군과 내부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산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열을 지어 조성된 무덤군 4기 가운데 2기가 법흥왕릉과 진흥왕릉

패하고 보내온 재료를 가지고 단번에 불상 조성에 성공하였다고 한 것은 아육왕과의 특별한 인연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육왕 못지 않은 위대한 제왕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식의 소산이었음에 틀림없다.

29) 高翊晉, 「統一當時 僧侶들의 國家的 寄與」, 『동국대학교논문집』 12, 1973, pp.68~72 참조.

30) 高翊晉, 『韓國古代佛敎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pp.45~48 참조.

31) 판카즈 모한, 「6세기 신라에서의 왕권과 불교간의 관계」, 『불교학연구』 9, 2004, 참조.

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흥왕대부터 법흥왕의 장지 선정을 계기로 하여 신라 왕실이, 6부 지배집단의 공동 묘역(대릉원지구)을 떠나 다른 새로운 지역에 그들만의 무덤군을 조성하였다는 것은 6부 공동의 지배체제에서 벗어나서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서의 지배체제가 일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삼국사기』 진흥왕조 말미에서는 진흥왕의 불교신앙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교를 받들었고, 말년에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으며, 스스로 法雲이라 칭하다가 죽었다. 왕비 또한 그것을 본받아 비구니가 되어 永興寺에 머물다가 죽으니, 나라 사람들이 예를 갖추어 장사지냈다.” 또한 『삼국유사』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조에서도 진흥왕의 불교신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제24대 법흥왕의 성은 김씨요, 이름은 多麥宗(夫)인데, 深麥宗(사미의 뜻)이라고도 한다. 梁의 大同 6년 庚申(540)에 즉위하였다. 백부 법흥왕의 뜻을 흠모하여 일념으로 불교를 받들어 널리 佛寺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이끌어 승려가 되게 하였다. 또 천성이 풍류를 좋아하고 神仙을 매우 숭상하여 민가의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原花로 삼았다. 이것은 무리를 모아서 인물을 뽑아 효도·우애·충성·신의를 가르치고자 함이었으니,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큰 요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진흥왕은 말년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호를 ‘法雲’이라고 하였으며, 왕비 思道夫人도 또한 출가하여 영흥사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전륜성왕을 본받으려고 한 행위였다. 『長阿含』권7 『轉輪聖王修行經』과 『中阿含』권15 『轉輪聖王經』 등의 초기경전에 의하면, 전륜성왕이 만년에 왕위를 태자에게 물려준 뒤 삭발하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해동고승전』 범공조에 의하면 법흥왕도 말년 흥륜사를 준공한 뒤 왕위를 사양하고 중이 되어 이름을 法空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삼국유사』 원종흥법조에 의하면 영흥사는 법흥왕의 왕비인 保刀夫人의 발원으로 흥륜사 공사가 재개되는 법흥왕 22년(535)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며, 왕과 함께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범명을 妙法이라 하고 영흥사에 머물렀다고 한다. 법흥왕과 보도부인의 출가 설화들은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주저되지만, 진흥왕이 말년에 출가하였고, 또한 왕비 사도부인도 실제 비구니가 되어 영흥사에 거주하다가 진평왕 36년(614)에 입적하였다는 사실은 『삼국사기』 진흥왕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다.

마지막의 결론으로써 지금까지 논의해온 바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흥왕 27년(540) 진흥왕은 7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법흥왕의 딸인 모친이 섭정하였는데, ‘建元’이라는 법흥왕대의 연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법흥왕의 불교홍룡의 정책을 이어받아 흥륜사 공사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흥륜사에 주불로 미륵불을 봉안하여 미륵신앙과 전륜성왕을 결합한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였다. 진흥왕은 즉위 12년(551) 18세로 성년이 되어 친정체제를 구축하면서 ‘開國’으로 연호를 바꾸고 왕권강화와 영역확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왕궁 건설의 자리에 황룡사를 새로 창건하고, 흥륜사의

미륵불에 추가하여 석가3존상을 새로 조성함으로써 미륵신앙과 전륜성왕이념을 주축으로 하는 불교적 정치이념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게 되었다. 왕권을 강화하고 영역을 크게 확장한 정복군주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사상으로 전륜성왕사상을 적극적으로 유통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의 위상 강화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전륜성왕으로 명명함으로써 불교적인 이상적 제왕의 출현을 기대하였다. 또한 진흥왕은 이러한 불교 흥륭정책의 추진과는 별도로 진흥왕 29년(568) '대昌'으로 연호를 바꾸면서 포고령의 성격을 가진 「진흥왕순수비」를 수립하여 유교적 왕도사상을 구현하는 제왕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진흥왕 33년(572) '鴻濟'로 연호를 다시 바꾸고, 황룡사 장유존상을 조성하여 더욱 진전된 불교적인 정치이념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진흥왕은 불교적인 전륜성왕 이념과 유교의 왕도사상을 종합하여 세간적 俗諦의 국왕과 출세간적 眞諦의 法王을 아우르는 '正法治世의 정치이념과 왕도정치이념을 수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진흥왕 37년(576) 말년에 花郎制度를 정비하여 미륵하생을 염원한 것도 미륵불과 전륜성왕의 정치이념을 사회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사상정책의 일환이었다. 진흥왕의 이러한 사상정책은 뒷날 삼국통일 달성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논문투고일 : 7월 10일, 논문심사완료일 : 7월 15일, 논문게재확정일 : 7월 15일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 『三國史記』, 『三國遺事』, 『海東高僧傳』, 『梁高僧傳』, 『續高僧傳』, 『梁書』, 『隋書』, 『南史』, 『北史』, 『日本書紀』, 『古事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韓國古代社會研究院 1992), 『新增東國輿地勝覽』.

2. 단행본 및 저서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수정판, 1992.
- 金哲垓,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90.
- 李基白, 『新羅時代 國家佛敎와 儒敎』, 韓國研究院, 1978.
- 高翊晉, 『韓國古代佛敎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 盧鏞弼,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 一潮閣, 1996.
- 오이환, 『동아시아의 사상』, 예문서원, 2003.
- 山崎元一, 『アショ-カ王傳説の研究』, 春秋社, 東京, 1979.
- 塚本啓祥, 『アショ-カ王』, サ-ラ叢書, 平樂寺書店, 京都, 1973.
- 定方晟, 『インド宇宙誌』, 春秋社, 東京, 1985.
- 문화재관리국, 『皇龍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1984.
- 국립문화재연구소, 『황룡사금당 기초 연구(황룡사연구총서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국립경주박물관, 『皇龍寺』, 2018.

3. 논문류

- 崔南善, 「新羅 眞興王의 在來 三碑와 新出現의 磨雲嶺碑」 『靑丘學叢』 2, 1930 : 『六堂 崔南善全集』 2, 玄岩社, 1973.
- 李丙燾, 「眞興大王의 偉業」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_____, 「北漢山 文殊寺 内の 石窟」 『震檀學報』 61, 1986.
- 金哲垓, 「新羅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上·下)」 『歷史學報』 1·2, 1952.
- 金煥泰, 「新羅 眞興王代의 信佛과 그 思想研究」 『佛敎學報』 5, 1967.
- 高翊晉, 「統一大業에 있어서 僧侶들의 國家的 寄與(II)」 『동국대학교논문집』 12, 1973.
- 판카즈 모한, 「6세기 신라에서의 왕권과 불교간의 관계」 『불교학연구』 9, 2004.
- 남동신, 「新羅中古期 佛敎治國策과 皇龍寺」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2, 2001.
- 최선자, 「신라 황룡사의 창건과 진흥왕의 왕권강화」 『한국고대사연구』 72, 2013.

- 노중국, 「신라 흥륜사 彌勒像과 황룡사 丈六尊像 그리고 진흥왕과 거칠부」 『신라 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37, 2016.
- 주보돈, 「皇龍寺의 創建과 그 의도」 『한국사연구』 176, 한국사연구회, 2017.
- 김혜경, 「신비의 장육상」 『皇龍寺』, 국립경주박물관, 2018.
- 김리나, 「皇龍寺의 丈六尊像과 新羅의 阿育王像系佛像」 『震檀學報』 46·47합, 1979.
- 최성은, 「신라 황룡사 중금당 장육삼존불상에 대한 연구」 『신라사학보』 23, 2011.